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 중앙추모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2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또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일군들, 수령영생위업실현과 위대한 장군님의 음혼판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오형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추모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하였다.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가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넋과 심장을 다 바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주체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전설적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세게 키워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당, 군, 청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이 있어 당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가장 숭고한 애민의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며 우리 인민이 수천년동안 갈망해오던 강국의 리상을 현실로 펼쳐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빛내여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의 분출인양 장중한 포성이 태양성지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진두에 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